

부패한 당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배우세요.

유 재현

부패한 관리들이나 비리를 저지른 사회 지도층에 대한 뉴스를 볼 때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면서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다보면 나라의 미래가 생각보다 밝다는 생각에 안도하곤 한다. 눈살 찌푸리며 보는 뉴스 속의 인물들과 달리 교실에서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따지며 때론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청렴한 공직자와 정직한 기업가로 자라나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된다면 미래의 모습이 어찌 밝지 않을 수 있을까? 청렴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국력이며 아이들은 그 힘을 어른들 보다 훨씬 더 온전히 지키고 있다

몇 해 전 여름방학이 끝나고 막 2학기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아침 6학년 교실은 대개 웃고 떠드는 소리로 소란하기 마련인데 이 날은 어떤 일인지 싸우는 소리가 교실 밖까지 크게 들렸다.

“왜 개수가 맞지 않는지 말해봐. 우리 반 인원수 보다 많잖아. 너희가 더 사먹은 거 아냐?”

교실 밖에서 잠시 지켜보고 있자니 반장인 민재는 회장인 재윤이와 부회장인 성재에게 따지듯 말하고 있었고, 재윤이와 성재는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한 채 곤란한 표정이 역력했다.

“영수증에 써있는 개수와 우리 반 인원수가 다르잖아. 다섯 개나 더 많이 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된 거냐고!”

조목조목 따지는 민재의 말과 추궁 당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일의 전말이 무엇인지 대충 파악이 되었다. 아이들 경제 교육을 하면서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모은 뒤 물건들에 일정한 가격을 붙이고 판매하는 알뜰 시장을 열었다. 이때 얻은 수익을 학급비로 하기로 했는데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한차례 더 하였더니 나름 큰돈이 모였다. 2학기 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재윤이와 성재가 이 학급비를 유용해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우르르 몰려들어 그간의 일을 떠들어댔다. 지난 번 학급회의에서 체육을 하는 날에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결정했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오기로 했던 재윤이와 성재 및 함께 있었던 몇몇 아이들이 더 사먹은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장인 민재는 영수증을 내게 들이밀었다. 영수증을 보니 확실히 우리 반 아이들 수보다 구입한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더 많았다. 슬쩍 재윤이와 성재 쪽을 보니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학급에 공금이 생기자 나름 구색을 갖추다 고 감사로 임명해 놓은 반장이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일단 아이스크림을 연구실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이야기하고 재윤이와 성재를 데리고 나와 상황을 물었다. 역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함께 있던 몇몇 아이들과 학급비로 더 사먹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음...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먹은 아이스크림 값을 다시 돌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친구들에게 사과 할 수 있겠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돌아왔다. 함께 먹은 아이들까지 불러내니 쭈뼛거리는 아이들에게 나머지 아이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회장인 재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는 친구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며, 먹은 금액에 대해선 학급비로 돌려놓겠다는 사과를 했고 다른 아이들도 비슷비슷한 말을 하고는 하나 둘 자리로 돌아갔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고 소란도 가라앉았다.

교사에 의해 맡겨진 책임임에도 감사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히 수행한 반장도 대견스러웠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아이들도 기특했다. 아이들을 잠시 지켜보다 문득 이 기회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3교시 진로교육으로 예정되어있던 ‘창의적 체험 시간’을 ‘청렴 교육’으로 바꿔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교육과정을 변경하였다. 수업자료는 아침에 있었던 일로 충분했다. 우선 공금의 개념을 이해시켰다. 또, 이번 일과 같은 행동은 공금횡령이라는 큰 죄가 된다는 것과 뇌물과 청탁으로 흐려지는 사회모습 등의 사례를 함께 이야기했다. 나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청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누도록 하였다.

평소 발표를 잘하던 회장 재윤이는 수업시간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분명 아이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되진 않았다. 그 모습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있는 어른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잘못을 했지만 부끄러움을 알아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올바르게 되돌리려는 선택을 한 재윤이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한 치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낮 두꺼운 어른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청렴수업은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회장의 용기와, 부정을 찾아내어 바르게 되돌리려한 반장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칭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되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다보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울 때가 많다. 보통 어른들은 아이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교육을 통해 점차 완전한 존재로 자라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런 어른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은 이미 어른보다도 더 완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보여줄 때가 많다.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편견 없이 대하는 모습과 차별하지 않는 넓은 마음, 부정과는 거리가 먼 정직한 마음은 아이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남들도 다하는 거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이나, 맡겨진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비겁한 현실인식을 갖고서 불의와 타협해 버리는 모습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고지식하다 싶을 정도로 잘못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다시 배워야 할 덕목이다.

인재 키우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한 유명 기업 총수는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십 수 년 전에 했던 이 말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면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여전히 인용되는 단골 문장이다.

하지만 나에게 이 말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능력 있는 인재가 없어서 멸망한 나라는 없다.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이 부패했을 때 나라가 위험해졌다.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부패에 의해 멸망한 나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지난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무리 강력한 대제국도 내부

적인 '부패'의 병증이 돌아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무너져 갔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라가 그러했고, 고려와 조선이 그러했다.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교훈은 특출한 인재의 양성보다 청렴한 인재의 육성이 더 중요함을 일깨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모습을 지켜주고 어른들의 오염된 병증인 부패가 아이들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교사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소임 중 하나임을 되새기게 된다.

오늘도 여전히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기사가 신문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교실에선 불의에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을 동경하며,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줄도 아는, 그리고 청렴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 아이들을 보며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부패한 어른들에게 말하고 싶다.

“부패한 당신! 다시 학교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청렴한 삶의 모습, 바른 삶의 자세를 다시 배워 가세요.”

※ 글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